

# 編輯後記

## Editorial Letter

☆...韓國火災保險協會가 發足을 한다니까 어느 人士 曰『또 協會야! 一 번 하지!』 自問自答을 한다. 그것도 좋다. 어느程度 協會業務를 알겠다는 사람 曰『그런 協會도 있오?』 駭然 曰『나 보겠다는 어투다.

韓國火災保險協會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 協會의 主業務가 火災豫防에 관한 연구계몽 및 點檢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協會의 安全點檢員이 點檢次 어느 建物을 방문했다. 그 建物의 무슨 長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무엇 때문에 왔오?』 불췌 소리로 사뭇 시비조다. 그것도 첫 마디가 겨우 설득을 시켜 놓으니까『돈은 안 받는 거죠?』참으로 정떨어지는 소리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記憶에 되 살리기도 싫은 저 大然閣「호텔」·市民會館의 大慘禍를 이들은 잊어버렸는가? 정말 모를 일이다. 理解하려고 해도 理解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協會는 누가 무어라 하든 所期의 目的達成을 위해 꾸준히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國民福祉라는 偉대한 大義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고 내 父母를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해 누린 積蓄着用에 무거운 짐짐기구를 둘러매 저 석색한 大韓의 젊은이들을 보라! 또 그들이 건물의 安全點檢을 診斷하는 모습을 보라. 정말이지 그 혼한 清潔飲料水가 없으면 물이라도 가져다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모습이야말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協會報를 創刊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創刊號라는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原因은 協會設立이 日淺한데 있다.

安全點檢을 하는데에도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原稿를 依頼하거나 蒐集을 할라치면 으레 保險會社「세일즈·맨」 취급이다. 그것도 좋다. 어떤 때는「안 삽니다」 이상한 얘기도. 무엇을 안 사는지는 나도 모른다. 여기에서 保險會社의 어려움도 알게 됐다.

☆...編輯上의 어려움도 이에 못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보는 이로 하여금 알기 쉽고 理解하기 쉽게 하는가? 이같은 問題는 協會報에 실린 모든 原稿가 거의 딱딱한 것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理解있기 바란다.

특히 創刊號이기 때문에 關係法수이라든가 約款 등이 「페이지」數를 많이 차지했다. 다음 號부터는 보다 좋은 原稿, 보다 좋은 資料, 보다 알찬 번역물 등을 수록, 여러분의 眞摯한 良書가 되어줄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國民生活의 安定에 직결되는 火災豫防에 관한 좋은 참고자료나 기타 小說, 隨筆, 隨想, 詩, 漫畫 등을 보내 주었으면 한다. 또한 協會의 發展을 위해 助言과 叱責事項도 결드려 주기 바란다. (掲載된 原稿에 대해서는 소정의 原稿料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季刊 火災安全點檢

創刊號

1973年 10月 31日 發行

登錄番號 마-301

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

發行人 李 豪 商

編輯人 金 靈 淑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草洞 21-9

電話 (26) 4106-10

(27) 4128-9

印刷所 서울신문사

<非賣品>